



지난 2012년 11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대학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는 15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외국인 선수와 관람객들을 안내하며 전세계에 광주를 소개했다.

# “U대회 ‘숨은 금메달’을 따세요”... 자원봉사자 12만명 양성



운영본부·도심 등지 경기 보조·안내

도시 홍보·대회 성공개최 숨은 주역

할을 했다.

최근 들어 자원봉사자는 런던 올림픽을 비롯해 전세계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숨은 주역이자 영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대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임 메이커로 인정받게 됐다. 대부분의 스포츠 이벤트에서 대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조직위원회지만, 조직위원회를 도와 대회 운영을 지원하고 또 선수와 관람객을 직접 접촉하는 주체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행사 보조자에 지나지 않았던 자원봉사자는 이제 실질적인 대회 운영이자 선수들을 돕는 또 다른 선수로서, 동시에 적극적인 관람객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3의 멤버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자원봉사는 또, 대회의 성공적 운영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에 나선 개인들에게도 새로운 세상에 접하고 또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얼

마 전 막을 내린 평창 스페셜올림픽에서는 100여 개 국에서 온 3000여 명의 선수에게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1대1로 배치되어 선수들의 손, 발이 되어주었다. 일반 대회보다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훨씬 많이 필요한 대회였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선수들을 수발하는 조연이 아니라 대회의 한 주체로써 함께 즐기며 대회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대회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지적 장애인과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 것도 좋은 성과로 꼽히고 있다.

자원봉사의 순기능과 장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국제대회에 투입할 자원봉사자 육성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있다. 2011년 중국 선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는 총 25만명의 자원봉사자를 경기장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 배치했다.

2012런던올림픽때는 대회 시작 5년 전부터 주경기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작했으며 실제 대회에 투입될 7만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는데 꼬박 1년을 보냈다.

올해 컨페더레이션컵 대회와 2014년 월드컵 축구대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브라질은 정부가 앞장서 자원봉사자 100만명 양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고 예외는 아니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둔 광주는 일단 12만명의 자원봉사자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대회 참가자가 2만명인만큼 실제 현장에 투입될 자원봉사자는 1일 2교대를 기준으로 적어도 4만명은 되어야 하며, 최종 투입되는 자원봉사자는 애초 자원봉사 신청 인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전례를 감안한 것이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는 실질적으로 대회 운영을 맡는 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자원봉사에 나선 광주시민들의 정성이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기고

김윤석

(광주U대회 조직위 사무총장)



## 성공 운영 핵심고리 ‘자원봉사자’

글로벌스포츠이벤트는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한다.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고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운영을 잘 했는가와 얼마나 흥행에 성공해 경제적 가치와 이익을 얻었는가를 말한다. 대회 운영은 흥행했지만 흥행에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두 분야가 수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회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 요소들이 있다. 흥행을 위해서는 화제를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타가 필요하고, 대회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바로 핵심적인 존재다.

자원봉사자는 대회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장을 비롯하여 선수촌, 호텔, 공항, 도심거리 곳곳에서 선수와 관람객들의 손발이 되어 줄 뿐 아니라 실제 대회 각 분야의 최일선에서 조직위원회를 도와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대회와 도시에 대한 호의적인 인상은 자원봉사자들의 태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니버시아드와 같은 종합스포츠대회를 치르려면 적어도 10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숫자로서 10만명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잘 훈련된 자원봉사자가 그만큼 있어야 한다. 170개국에서 오는 선수와 관람객을 맞이해야 하므로 기초적인 외국어능력은 물론이고 관람안내, 경기진행, 사무지원 등 각자에게 주어질 직무를 완벽하게 익혀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외부인을 응대해야하기 때문

에 직무를 넘어 경기장 지리, 관람동선, 경기일정, 대회 주요 뉴스 등 대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기장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능력도 키워야 한다.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고 평가받는 2012런던올림픽은 25만명의 자원봉사 신청자 중 7만명을 선발해 1백만 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 시나리오를 작성해 아주 세부적인 행동요령을 익히게 했다고 한다.

이처럼 숙련된 자원봉사자를 길러내려면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우리 조직위가 대회 5년 전부터 언어교육을 진행해 오며 광주 전지역의 30여개 교육기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자원봉사학교를 시작하는 이유다. 교육은 앞으로 2년여간 기본, 직무, 심화교육을 거쳐 대회 직전 마지막 현장 적응훈련까지 5단계 과정을 체계적으로 밟아 나가게 된다. 단계별 교육을 통해 대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자원봉사의 실재를 경험하고 익히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2015년 대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대회 참여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장기 교육을 거친 열정적이고 전문성 있는 12만명의 자원봉사자가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곳곳에서 활약한다면 대회 성공은 의심할 것 없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광주시민 개개인의 경쟁력을 키우고 광주의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자원봉사학교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양성과정 어떻게

## 자원봉사학교서 2년간 5단계 분야별 교육

### 조직위 2014년까지 모집·양성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12만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대장정이 본격화됐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운태)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학교 개교식을 갖고 12만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오는 2015년 7월 개최되는 광주U대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학교에서 실시하는 모두 5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단계인 기본교육은 일반시민 8만 명과 대학생 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매주 2회씩 교육이 이뤄지며, 대회 개요 및 준비현황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등을 교육받고 응급처치 요령 등을 실습하게 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3300여 명의 자원봉사 신청자들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매일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중 자신이 선택한 교육장소와 일정에 맞춰 각 구청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2단계 직무교육은 기본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매일 1회씩 광주시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되며 유니버시아드 정신 및 국제매너와 친절, 자원봉사자 직무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된다.

3단계 심화교육은 기본·직무교육 이수자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매일 5000명씩 U대회조직위의 중앙교육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리더십 육성, 주요 참가국 문화 알기, 상황별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4단계인 사이버교육은 심화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수시로 진행된다. 역시 조직위 중앙교육센터에서 주관하며, 지금껏 받아 온 기본·직무교육에 대한 보충학습 그리고 현장적응 선수학습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인 5단계에서는 현장적응 훈련이 이뤄진다. 대회가 열리는 2015년 1월부터 시작되며, 3일만에 걸쳐 5시간 동안 시뮬레이션에 의한 현장교육이 진행된다.

경기장과 본부호텔, 선수촌 등 대회가 진행되는 21개 주요장소에서 영역별 현장적응 훈련을 하게 된다. 3만명이 교육대상이며, 각 분야와 직종별로 최적임자를 선발하게 된다. 현장적응 교육을 받는 3만명 외 나머지 자원봉사인력 9만명에 대해서는 분야별 교육이 별도로 진행된다.

조직위는 오는 2014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양성할 계획이며, 자원봉사 신청은 광주시·구 자원봉사센터, 동주민센터, 각 대학 학사관리 담당부서 등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2015광주U대회 홈페이지(www.gwangju2015.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